

무안군, '무안형 뉴딜사업' 46건 확정

3개 부문 사업비 1801억원...지역 신성장 창출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전략사업 46건 확정

무안군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계 소요 총 사업비 1801억원(국비 889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무안형 뉴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총 91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중에서 실행가능성이 높고 한국판 뉴딜 3대 정책(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전라남도 대응계획과 연계되는 전략사업 46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무안형 뉴딜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재해위험지구 상

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 전지훈련장 조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 20건 ▲모두누리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 등 그린 뉴딜사업 21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프로젝트 등 안전망 강화사업 5건이다.

특히, 디지털 인재양성과 ICT기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사업을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녹색생태계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두누리 숲 조성사업을 그린 뉴딜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도심복



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서 현 상황을 지역내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기초인프라 발굴과 투자에 주력하겠다"면서,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군민들에게 실질

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46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국비 건의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꽃차 소믈리에 18명 양성

증도면 병풍도 주민 대상 2주간 교육

신안군은 증도면 병풍도에서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꽃차소믈리에 3급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 300여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 병풍도는 작년보다 맨드라미를 심어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올해 전국 최대규모 12ha 맨드라미를 심어 형성색재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섬 주민들이 몸에 좋은 맨드라미 꽃차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희망하여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천사의섬 꽃이야기 대표 강인경 강사님을 모시고 꽃차용으로 재배 관리한 맨드라미 뿐만 아니라, 매리골드, 아마란스 꽃차와 꽃청, 꽃식초, 꽃 식혜 등 식용꽃의 다양한 가



공 교육으로 20대 젊은 새댁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교육생들의 배움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병풍도부녀회 이영란회장은 "맨드라미 발을 가꾸느라 바쁘지만 교육시간은 손꼽아 기다려졌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첫 정례조회 영상으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에

영암군은 코로나 19가 장기화에 따라 9월 정례조회를 직원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으로 대체했다.

지난 2월 대면 정례조회 이후,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개최하지 못했던 7개월만에 갖는 정례조회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영상 정례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월 1일, 전동평 영암군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중 군비 15억원과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를 군민1인당 10만원씩 총55억원을 지급했다.

전 군수는 영상을 통해 ▶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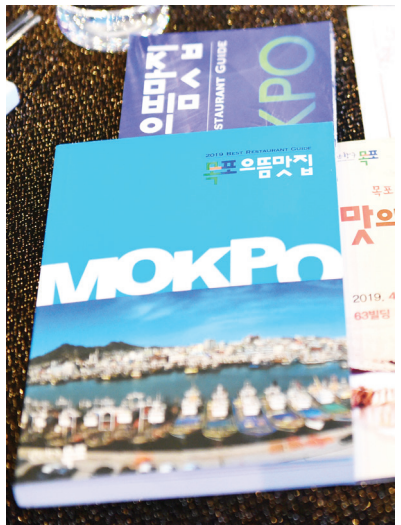


19 재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 뉴딜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 ▶ 태풍피해 조사 및 농작물 관리 등 9월 중점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맛의 도시' 목포, 2021년 목포 으뜸맛집 찾아요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관광과 신청서 접수...12월 선정



목포시가 오는 29일까지 2021년 목포 으뜸맛집 선정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맛의도시 목포'를 선포하고 우리지역 맛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2년에 걸쳐 현재 총 124개소 으뜸맛집을 선정 관리하고 있다.

사업공고일(9월 1일) 기준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맛의 도시에 걸맞는 음식문화조성을 선도 할 업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전국 10개이상, 전라권 5개 이상인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사업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업소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대표메뉴와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포시청 관광과(270-8635)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식품업계·관광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엄격한 기

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된 업소는 지도·책자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위생·서비스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맛집 품질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맛의 도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지역 대표 맛집으로 공경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 맛·청결·친절의 3대 실천 덕목으로 목포의 음식문화를 선도 할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올해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으뜸맛집에 대한 강력한 사후평가를 통해 목포의 대표 맛집으로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토산어종 어린자라 관내저수지에 방류

지역 학생·학부모 참여...어린자라 5천8백마리 방류

영광군은 지난 8월 31일 관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자라(각장 2.5cm 이상) 5천8백 마리를 군남면 용암저수지 등에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류한 자라는 저수지의 퇴적층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저

수지 수생태 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는 환경 정화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어종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처음 참여한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린자라 방류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의 토산어종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린자라 방류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앞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동자개, 뱀장어, 붕어 등 다



양한 내수면 어종에 대해 지속적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내달부터 보훈수당 인상

함평군이 10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한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개정 공포된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호국보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이 각각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군은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지난 8월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특히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18 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월 7만 원의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5·18 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각각 보훈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인상된 보훈수당은 당장 내달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과 6·25전쟁·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지급된다.

함평=김광훈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